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상시 방역활동 추진

- 6월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목)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6월 13일(금)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 ① (발생) 가금농장은 4월 19일 충남 아산 지역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고, 야생조류는 3월 24일 경기 수원지역에서 마지막 검출된 이후 검출되지 않음(가금 농장이 아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서 5월 20일 검출되었으나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이상 없음)
- ② (이동제한) 6월 12일 전국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됨
- ③ (일제검사) 전국 가금농장(오리) 일제검사 결과에서 모두 이상 없음

1.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총 47건이 발생하였다.

- * 축종별 : 닭 29건(산란계 22, 토종닭 4,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8건(육용오리 16, 종오리 2)
- ** 지역별 : 전북 11건(부안 5, 김제 5, 군산 1), 충남 9건(천안 4, 아산 2, 당진, 서산, 청양), 충북 8건(음성 3, 진천 3, 청주 2), 전남 5건(담양, 강진, 영암, 영광, 함평),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세종 4, 경북 2건(영천 구미),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강원 1건(동해)

< 연도별 가금농장 발생건수 >

연도	'14/15	'16/17	'17/18	'20/21	'21/22	'22/23	'23/24	'24/25
발생건수	391	421	22	109	47	75	32	47

우리나라는 이번 동절기 지난해(12월 3일)보다 35일 이른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10월 29일)하였고, 발생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14개 시군→25개 시군)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6월 13일(금)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전국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주의→관심)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전국 상시 예찰검사와 방역점검을 통해 국내 발생 위험을 관리하고, 방역교육 등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2. 하절기 방역관리 계획

농식품부는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이번 방역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를 개정하고, 가금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정비한다.

둘째, 2025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한다.

넷째, 가금농장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차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권역별 및 축종별로 맞춤형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특히 발생농장에 대한 재발방지 특별 방역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준 결과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고,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여름철에도 산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들을 잘 찾아서 개선하고, 상시예찰·검사와 전국 방역실태 점검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다가오는 동절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정승교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병용 (044-201-2555)